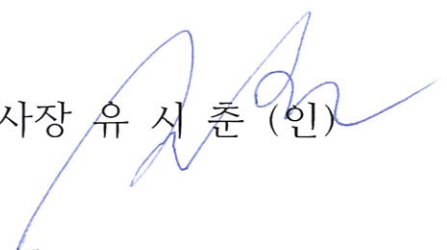


## 제313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제2021-15호 2021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9. 9.(목) 15:59 ~ 17:19,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제2021-15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 자	간 사

[확인] 이사장 유 시 춘 (인)



제 313 회

#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6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 회 순

I. 개회 .....	1
II. 인사 .....	2
III. 전차 의사록 확인 .....	4
IV. 상정안건 .....	5
〈보고안건〉	
제2021-15호 : 9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6
V. 폐회 .....	28

(開會 : 15時 59分)

##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김혜영 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가운데 문종대 이사님을 제외한 여덟(9)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II. 人 事

### ○ 議長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이사회 이후에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 14일로 우리 7기 이사회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7기 이사회의 마지막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불교 경전의 말이 실감이 됩니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인간사를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우리 이사님들께서 7기 이사회를 함께하면서 많은 고민을 공유하고 마음을 모아서 EBS가 닦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작할 때 적자재정으로 시작하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했으나, 마칠 때 보니 흑자로 전환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겠으나 EBS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이사분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저의 EBS에 대한 사랑을 믿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사분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류의 그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못 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기민하게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해 주신 사장님과 또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EBS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신뢰를 바칩니다.

오늘 상정안건 한 건입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7기 이사회에 몸담았던 소회와 앞으로 EBS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한 말씀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들겠습니다.

###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도 그동안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도 드리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313회 이사회에서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EBS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EBS는 여기 계시는 이사님들이 재임하시는 동안 제2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재원 3,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적자경영의 고리를 끊고자 조직 개편도 하였고, 비용 절감 및 수입 다각화 노력을 통해서 2020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EBS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강연 다큐 콘텐츠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기획 제작해서 최근에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석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지구적 지식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TV형 콘텐츠 개발을 독려하고 투자해서 ‘뽕수’라는 슈퍼IP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이언트 뽕TV>라는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캐릭터 사업화 추진으로 EBS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제작 환경 개선, 그리고 더 나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주제작사들과 협의하여 ‘외주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이뤄냈습니다.

앞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 공백의 위기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재임기간 동안 EBS를 위해서 끝없는 애정과 격려, 그리고 고전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사님들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EBS는 앞으로도 이사님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9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전차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제312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이메일로 모두 송부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셨을 줄로 알고요.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정사항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해도 될까요?

[ 理事들 “예.” ]

예. 그러면 제312회 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회의 공개 여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공개는 관례대로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報告案件 〉

### 【 第2021-15號 : 9月 主要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 議長 유시춘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2021년 9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이사장님, 사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보고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7기 이사님들께서 이 위기에 EBS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크게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p)5, 1번 사항입니다.

<당신의 문해력> 방송대상 작품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방송협회 주관으로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사회공익 부문의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아울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매달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어서 3월에 방송된 것이 9월에 시상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대상에는 라디오의 <도진기의 5천만의 변호인>이 ‘생활정보 라디오’의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상으로는 영상촬영에 이명훈 감독, 성우 내레이션에 이금희, 기술진 흥에 김필수 감독, 공로상에 MC 김종석 씨가 함께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번 사항입니다.

<다큐프라임-도시예찬>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부작이 방송됩니다.

도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인간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공유 받았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오디오 e지식사이트가 9월 30일 목요일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오디오 e지식사이트의 경우에는 8개 분야를 나누고 거기에 각 10개 내외의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해당 프로그램별로 약 50여 개의 신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One-Source Multi-Use 전략에 따라서 기존 FM 인기 프로그램 중 100여 개를 재정리해서 관련 분야에 재업로드 함으로써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시청자를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저희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계신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현재 계획대로 잘 방송되고 있고, 아울러서 관련된 사업들 역시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당 시간대에 기존 광고단가가 75만원이었는데, 이를 120만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KOBACO와 광고판매에 적극 나섰는데 지금 LG 1억, 그리고 LGU+의 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이 완판된 것으로 공유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타 지상파 대비로 광고총량제 중 80%만, 타 지상파 광고시간 대비 80%만 저희가 광고를 팔 수 있도록 지금 허가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억이 완판되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5번 사항입니다.

국제방송영상마켓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참가는 힘들지만 저희가 온라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맛터사이클>과 <요리의 과학> 등 저희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도 적극 진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6번 사항입니다.

2021년 직원 신규임용이 진행되어서 9월 1일자로 총 22명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7월에 6명을 저희가 <위대한 수업> 때문에 선 임용을 했고, 8월에는 변호사 1명을 선 임용해서 총 29명의 신규임용이 최종적으로 모두 이루어졌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당 신규임용 직원의 연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완료하고 궁금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사님들 의견이나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 意見提示 및 質疑하는 理事 없음 ]

여기 오기 전에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이영한 이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 理事 이영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나라 방송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석학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A사 B사 이런 데서도 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 EBS가 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방영해야 하는데, <위대한 수업>으로 돼 있는데, 보통 수업은 일반적으로 보면 강의가 초등학교는 40분이고 대학교는 1시간 반 하거나 아니면 한 50분~6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대한 수업>을 들어봤는데, 20분이 조금 짧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깊이 있게 석학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리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 理事 김양은

마지막 회의인데 괜히 잔소리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엄청 기대하고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봤는데,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대표적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가장 큰 것은, 'EBS가 정말 수신료의 가치를 한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섭외하시느라고 다들 프로그램 만들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평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첫날 방송을 딱 열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약간 더빙으로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더빙이어서도 있지만, 전문가든 강의든 어떤 이런 대화든 간에 본인의 언어로 얘기하고 목소리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어떤 지식의 전달의 의견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빙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의도보다 정보가 약간 조금 덜 전달되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라서 다음에도 이런 것을 만약 기획하시고 앞으로 홈페이지도 하시는데 저의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OTT나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자막과 더빙을 선택해야 하고, 또 수어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이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

에게 좋은 정보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특히 자막방송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원어로 듣겠다.’도 있지만, 사실 더빙을 하는 이유도 있고 자막을 통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자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EBS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게 항상 모든 콘텐츠에서 우선시되었으면, 특히 <위대한 수업>이라고 불리는 EBS의 그 가치는 그런 섬세함에서 또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똑똑 끊기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재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으로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보시고 조정하시겠다고 지난 차수에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더 해서 EBS만 할 수 있는 정말 공익적 콘텐츠의 배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해서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찬과 격려를 하자면 네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K-Knowledge로 하느냐.’ 이러저러한 네이밍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제작진과 실무진에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로 한 것이 너무 좋은 네이밍 이고요,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지프 나이 5회분이나 어제까지 폴 크루그먼 3회분을 보면 우리 실무진 들, PD들이 연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요.

그 노 대가를 몇 걸음 걸어보라 그러고, 위대한 수업을 그분들로부터 말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노력들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섭외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주로 지식인들의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시 35분의 시간대가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저는 약간 졸린 눈을 부비면서 폴 크루그먼을 들으려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 듣고 왔는데, 쉬운 말로 들을만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아니고 고도의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때

문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40분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집중력도 높이고 소구력도 높아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저에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월·화·수·목·금 20분으로 잘라서 하는데 앞뒤 광고시간을 제하면, 어제는 제가 재봤어요. 17분입니다. 너무 짧아요.

그 훌륭한 지식들을 마음에 담기에는 사고가 끊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월·화·수로 40분씩 연결해서 하는 것이 이해력과 소구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더빙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은 지금 두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더빙을 하면 그 세계적 석학들, 지식인들의 말이 성우의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영어지만 자막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강약 이런 뉘앙스들이 그래도 화면으로 전달이 되는데, 더빙으로 하니까 그 높은 지식인, 지성인들의 말이 우리나라 성우의 말로 전달되는, 약간 원 뉘앙스가 왜곡은 아니지만 변용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저에게 시청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소회입니다.

그리고 전부 칭찬은 ‘세계적 히트상품이다.’ 이런 것 아끼지 않으셨고요, 큰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식의 보물창고를 외진 곳에 둔 듯한 느낌, 종합적으로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편성에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지적인 자극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확장하고 또 소구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송시간과 그 방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 社長 김명중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시간대, 그리고 각 회분의 시간 양, 그리고 방송언어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방송언어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나 찍기 시작해서 저희가 방송 보는 데까지 밤잠을 새워서 8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내일 ‘자막 넣읍시다.’ 해도 수 주간의 기간이 있어야 올 수 있었고, 사실 ‘더빙을 할 것이냐, 자막을 넣을 것이냐.’ 가지고 제작진들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해서, 지금은 경제학이나 정치학은 좀 낫지만 과학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나가면 자막을 따

라가면서는 도저히 또 시청자들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했으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단 현재 준비는 원어에 한글자막, 그리고 더빙 이 2개 버전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은 당연히 한글자막이 들어가고요.

그 작업을 현재하고 있으나 바로 오늘내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방송 언어문제는 쉽게 그래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방송시간대와 회별 시간 양에 대해서는 저도 편성센터장에게 많은 주문을, 아마 이사장님 ×5배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일단 1단계로 그 시간대의 어려움이나 이것을 1단계로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전체를 몰아서 9시 반부터 해 주는 그 편성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편성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자면, 사실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그냥 녹화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간 PD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선풍기로 부쳐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자들이 잠깐 쉬면 포터블 선풍기로 바람도 쐬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순히 가서 찍는 것이 아니고 4시간, 5시간을 찾아가서 새로운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뒷얘기만 모아봐도 정말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작진은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것 시작하면서부터 딱 하루 쉬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저녁에 빨리 가는 분들이 하 11시쯤 퇴근할 수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거의 극한 상황에서 지금 단순한 강연이 아니고 다큐 강연을 만들어내느라고, 자료가 우리가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 확보를 해서 생생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정말 보람을, 또 여기저기서 오는 그러한 칭찬 때문에 아마 밤샘작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우리 편성센터장님, 잘 들으셨죠?

○議長 유시춘

편성센터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사실 지금 <그레이트 마인즈>는 저희가 1TV에서는 월요일 밤 11시 35분부터 20분 동안 방송이 되고, 그리고 오후에 15시 5분부터 20분 동안 전주에 나간 것을 재방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TV에서는 밤 10시에 전주 재방을 하고 종합방송을 토요일 10시 5분에 편성했는데, 긴급히 1TV에 토요일 9시 반부터 종합편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데일리 편성을 유지하면서 밤시간을 바꾼다 하면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건축탐구 집>이라든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신계속의 맞터사이클>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다 바뀌야 되는데, 또 그 프로그램 또한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시청 흐름상 과연 바꾸는 게 더 나올지 사실은 저희 편성센터 입장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되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분 짧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세팅이 20분으로 진행을 해서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20분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보다 늘어난 30분, 40분 어떤 게 적절한지 그것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다음 진행을 할 때는 아예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더빙하고 자막 부분은 제작진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성다중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방송 시작되면 안내자막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설정을 가서 강연자가 만약 영어로 말씀하시면 영어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議長 유시춘

한 가지 꼭 전제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무자들의 헌신, 좋은 이름, 섭외력, 연출 이런 것 다 상찬해 마지않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헌신과, 또 굉장히 상찬을 받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소통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아주 선의의 소망에서 우러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참고로, 어제 그제 제가 어떤 고위공직자 두 분을 사적으로 뵈는데,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이것 세계적으로 히트상품이 될 거다. 그런데 시간이 왜 그렇게 짧지?’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은근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이것을 ‘편성 쪽에 이 진심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오늘 아침 우리가 마지막 이사회여서, 그러니까 이 좋은 상품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소통의 장치를 더욱 더 배려하면 좋겠다 하는 그 어떤 중심에서 우리나라와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부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副社長 김유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바로 사장님 주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제기를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했던 편이고, 저는 편성의 고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성부장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 기획을 처음 맡아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애정도 있고 그런데, 러닝 타임은 아까 센터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원판이 20분으로 돼 있어서 아마 당장 러닝 타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딱 잘라서 말씀은 못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2차 섭외에 들어갈 때는 아예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30분짜리 강의로 하겠다.’라고 맺어야 됩니다.

지금은 조건이 바뀌면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약 조건 변경을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음에 저희들이 프로포절을 낼 때, -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원판을 한 30분~40분으로 쓰고 차라리 25분으로 방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내용의 밀도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센터장이 답변했듯이 고민을 하면 아마 그렇게 고민할 것 같고.

방송시간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편성 쪽은 저도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저도 이사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한번 앞뒤 50분짜리하고 맞바꿔보는 것은 시도를 해 볼만 하다.

그리고 시청률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50분짜리가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50분짜리의 시청률이 있고, 이게 중간에 <다큐프라임>과 <맛터사이클> 중간에



들어가서 시청률이 곱이 파지면 ‘뒤에 50분짜리의 시청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보통 시청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가지를 저는 편성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시청률이 모든 프로그램의 가치는 아니니까 뒤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앞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시청률의 양적 가치가 좀 뒤에, 50분짜리가 10%~20% 빠진다고 해서 EBS의 전체적인 콘텐츠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런 2가지 대목에서,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떨어질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그 부분에 뭔가 해답을 찾아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오리지널하게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K-MOOK에 납품 프로그램이에요.

납품 프로그램인데, 지난해 내내 진짜 이사장님 완전히 동분서주하고 같이 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정말 간난신고 끝에 지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인데, 이사님들 같이 노력해 주셔서.

12월에 [www.thegreatminds.com](http://www.thegreatminds.com)이 공식 출범을 합니다.

공식 출범을 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가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자막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냥 영어자막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자막도 선택해서, 6개국어 자막 선택을 해서 이 OTT 중심체제로 가게 되면 자막 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앞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bs.co.kr](http://ebs.co.kr)에서 더빙 버전과 자막 버전을 동시에 서비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상태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월요일에 외부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외통위원장이나 과방위원장님, 또 원내대표님 이렇게 VIP들이 EBS 방문해서 격려 방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드렸지만 제작진들이 완전히 그로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스스로들 문제가 있는 것은, 되게 훌륭한 PD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문제 개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용도 처음보다는 똑같은 20분이라 하더라도 20분 내의 내용의 밀도와 완결성도 지금보

다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착오의 첫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20분 내, 아까 17분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17분에 딱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어색하게 느끼시는 게, ‘30분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17분에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럴 텐데, 여기에는 제작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 영어,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제작진들이 이 석학들을 좌지우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이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저희들도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쟁점이 하나 ‘방송시간 당기는 것’, 그것 이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지금 부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40명의 세계 지성의 리스트가 나가고 난 다음에 특히 2030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딱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의 화제는 그 직전에 황홀한 리스트를 받았을 때보다 약간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과문은 굉장히 강해서 드디어 월요일 날 국회 외통위 상임위원장, 과방위 상임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 두 분, 원내대표까지, 그리고 방통위, 또 KOICA 사장님까지, KOICA에서까지.

이게 우리가 두 달 뒤에 [www.thegreatminds.com](http://www.thegreatminds.com)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외통위 산하의 KOICA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한 선정적인 과문이 아니라 지적인 과문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이, 좋은 상품이 좋은 보물창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사님들께서 소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그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전부 봤던 EBS의 자료화면들이요,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료화면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자연다큐가 많으니까요.

보니까 제가 다 봤던 EBS 화면들인데, 사실은 가슴이 좀 떨렸어요. 도킨스 그 화면을 보면서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제기한 3가지 문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더 많은 국민들이 이 EBS의 화려한 영상과 깊은 지식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마지막으로 더 간곡히 전합니다.  
더 또 질의 있으신가요?

[ 意見 提示 및 質疑하는 理事 없음 ]

그러면 보고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듣고요.

오늘이 저희 마지막 이사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짧게 3년 재임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EBS에 대한 제언을 짧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한 이사님부터 하실까요?

그냥 지나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 理事 이영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뒤돌아 쪽 생각해 보면 하나의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사회 혼란도 있었고, 또 적자재정 문제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이렇게 3년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회사 EBS의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사장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혼연일체 돼서 EBS를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사진들도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전문분야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배경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EBS 발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는데, 회사 발전과 우리 직원들의 복지 이런 것을 잘 한 상생의 노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3년 동안 이사회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를 생각해 볼 때 ‘희망’, ‘자신감’ 이런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희망과 자신감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도 많이 늘고 규모가 많이 커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EBS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EBS가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기여라든지 신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세계 속의 EBS, K-EBS라는 그런 하나의 컨셉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빈곤 문제라든지 인류 평화, 그다음에 공동 번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EBS가 세계 문제를 리드하는 하나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레이트 마인즈>가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인즈>가 잘 안착이 되면 그런 K-EBS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출발점으로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방적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우리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의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K-EBS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한 발짝 뛰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議長 유시춘

예, 다음 말씀하세요.

○理事 정동섭

저는 이영한 이사님 말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총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했는데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교육이 안 좋다, 뭐다’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런데, 해외 선생님들 만나면 ‘한국의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수하냐?’ ‘한국의 교육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런 것을 배우려고 그러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전액으로 할 테니까 프로그램을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늘 불만이 많고 ‘왜 못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그런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방송도 EBS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밑에는 우리 사장님, 부사장님, 간부님들의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의 결실이지만,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세계시장에 어필을 하느냐. 이런 방법도 한번, 인력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연구를 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K-EBS가 아마 그때쯤 되면 한국에 와서 배우지도 않고 그 방송을 보고 한국의 교육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잘 만들어 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찬사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 이사님들 그려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배움의 장이었고 저 자신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옛날 말로 꽃이 지고 나서 봄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처럼 마지막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그 좋은 시절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사장님, 또 이사님들, 사장님, 부사장님, 간부님들하고 같이 했던 이 시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비록 바깥에 나가지만 EBS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拍手)

○議長 유시춘

예, 김진 이사님.

박수는 나중에 칠게요.

○理事 김진

저는 그동안 어디 가서 회의를 하면 엄청 싸워야 되거나 아니면 숙제를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비를 10배씩 내야 되는 그런 이사만 하다가 EBS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숙제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황홀한 3년을 보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제가 EBS에 너무 기여한 바가 없어서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엄청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3년 동안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저희 변호사들이 워낙 나쁜 변호사가 많잖아요.

나쁜 변호사가 많고 돈도 워낙 많이 버는 변호사가 많으니까 항상 생각에 ‘아, 나는 김&장 만큼은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자기는 조금 받는 것 같고, 돈 떼먹고 보석금 떼먹고 이런 변호사들같이 안 하면 자기가 되게 좋은 변호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잔소리하고 지르면서도 자기가 인권변호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EBS는 너무나도 훌륭한 조직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직원들이 자부심이 많은 조직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 그게 조금, ‘우리는 A사보다 되게 인력이 적어.’ ‘B사보다 더 공익적이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만큼 되게 독보적이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레이트 마인즈> 같은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는 조직은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저도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가끔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EBS도 그렇게 국민들이, -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법인 것 같아요, 법 자체가.

교육과, 평생 교육만을 위해서 방송을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공공적으로 그 기구를 보호해주겠다는 법이 있다는 것은, 물론 시청료도 안 주고 엄청나게 부족한 게 많지만 너무나도 특권적인 지위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실까요?

○ 理事 김양은

점점 순서가 오니까 해야 될 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줄 거면 선동규 이사님 나중에 하실 말씀 없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도 임기가 끝나가는 한 두 달 정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EBS의 이사회에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3년 동안의 저를 돌아보기도 했고, 또 3년 동안 제 마음에 닿았던 EBS의 구성원들과 EBS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사회 자리에서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 정말 EBS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다른 이사님들도 다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 어려운 COVID-19와 또 어려운 와중에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일단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장님, 이사님들 모두 그렇지만 이 EBS 구성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3년 동안 함께 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평을 두 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리고 최근에 공영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E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라는 것들의 마인드를 가장 많이 가슴에 담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콘텐츠 하나하나 만들 때, 또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닿을 것인가.’ ‘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함께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면서 드는 생각은 아까 제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도 얘기한 말씀드렸지만, 수신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정말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EBS를 3,000억 시대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고, 그것을 같이 함께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영광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위대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BS 콘텐츠는 너무나 독특하고 우수한 콘텐츠이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아까 제가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여러 가지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 저희는 한 발 더 가서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이 공영방송이 과거와는 다른 데서 우리 교육방송, 교육공영방송이 모두에게,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그런 공적 서비스를 설계하시는 마인드가 조금 더 확장돼서 정말 교육방송으로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정말 마음 깊이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밖에 나가서 EBS와 관련해서 항상 함께했음에 뿌듯해 하고, 그리고 항상 제 힘이 닿으면 닿는 대로 EBS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유시춘

예, 다음 박강호 이사님.

○理事 박강호

저는 6년 전에 이사회 이사 되고 나서 돌아가면서 인사말 하라 그래서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년간 밥값을 제대로 했는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대로 일을 못 한 것 같아서 EBS에 미안합니다.

제가 언론운동을 한 30년 넘게 하면서 주변에 방송사, 신문사 많이들 봐왔는데,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EBS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겸손한 자세가 오늘의 EBS를 일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꾸준히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KBS 이사 구성을 보니까 KBS 출신이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이런 것 얘기할 때 이것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EBS는 어쨌든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론 형성, 우호적인 여론 형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계 이런 쪽 관리하고 하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가 이미지 좋고 프로그램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대한 마인드랄까 이런 게 좀 세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대외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신료추진단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KBS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이 수신료 문제는 EBS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A가 돼야 EBS도 KBS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6년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유시춘

예, 다음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理事 장옥님

저희가 2018년 9월에 임명장을 받고 이사 활동을 하고 3년이 참 빨리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재임하는 3년 동안 EBS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이사님들보다는 전적으로 사장님 이하 EBS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작년이죠. 2020년 6월에 EBS가 공사 창립 20주년 행사를 아래 홀에서 해서 저도 시간을 내서 참석했었는데, 청년이 되는 20세, 성인이 된 거죠. 청년에서.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뜻 깊게 그 행사를 지켜봤고, 제가 먼저 있던 직장하고 여러 가지가 늘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있던 데에 비해서 이 조직이 훨씬 가볍고, 또 콤팩트하고, 그리고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도 제가 전직장에서 느끼지 못한 정말 젊고 새롭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돼서 ‘역시 참 다른 조직이구나. 같은 공영방송이지만.’ 그리고 또 물론 여기서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참신한 조직이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또 그 이전부터도 방송환경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지상파들은 사양길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EBS는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에서도 오히려 그 존재감을 드러냈고 교육방송 본연의 임무를 적극 잘 수행해 낸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또 저희 재임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욱더 저희로서는 뿌듯한 생각입니다.

저도 PD 출신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EBS뿐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콘텐츠들이 제작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PD나 구성원 모두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이 주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또 하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다음에는 피드백이 들어오고.

요즘은 방송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One-Source Multi-Use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제작이나 편집을 해서 다른 다양한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도 몇 번 관련된 얘기를 드렸지만, 제작자들은 사실 프로그램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사후관리 같은 게 조금 미처 생각을 못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자기가 기껏 잘 만들어 났는데 홍보하고 이러는 데서 늘 시간이 달리고 기력이 달려서 사후관리랄까 홍보 이 부분에서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간부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작 PD들은 그것까지 여력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위에서 부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서, 사실 EBS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손색이 없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 홍보하고, 그 홍보라는 게 자기 채널 안에서 프로그램 예고 이런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번에 <그레이트 마인즈> 전광판 홍보하셨듯이 가끔은 그런 투자를 하셔서 EBS가 그냥 일반 국민한테 ‘교육방송’, ‘아이들 유치원 프로그램’,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한정된, EBS에 대해서 그런 한정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EBS가 다른,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방송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홍보해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어떤 미래로 나가는 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고맙습니다.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시죠.

#### ○理事 선동규

앞에서 이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괜히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각 방면에서 나름 내공을 탄탄하게 쌓으신 분들이어서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EBS에 왔을 때 이사님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짐승의 세계에 살다가 인간의 세계에 내려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EBS는 정치적으로 크게 이사님들끼리 대립하고 싸우고 할 일이 없죠.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과거에 B사 000000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건가? 현실이 이렇게 피 튀기는가?’ 그런 느낌을 받곤 했었거든요.

참 그런 것 없이 화기애애하게 이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해서 행운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 중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는 말이 있죠.

‘소나무가 무성하면 옆에 있는 잣나무가 춤을 춘다. 기뻐한다.’ 그런 뜻인데, 제 인생에서 EBS에 잠깐 Involve하고 지금보다 먼, 세월이 더 많이 흐른 뒤에라도 ‘EBS가 잘 나가고 있다.’ ‘좋은 콘텐츠를 뽕뽕 제작해서 방송 잘하고, 경영상태도 좋고, 노사 간의 화합과 협력도 탄탄하고, 정말 EBS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먼 훗날에라도 제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 EBS가 돼 주시기를 기원 드리고,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멀리서라도 EBS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실 말씀 많이 저하고 겹치는 것 같고요.

저는 매우 늦은 나이에 진실로 고백하건대 국가의 소중함과 공영방송의 가치를 고비 고비 자각하고 체험했던 3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제가 경주의 계림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전쟁에 무너진 교사가 반나마 열려서 아직 복구되기 이전이었습니다.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보냈던 제가 반세기 후에 COVID-19라는 인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30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 그 공영방송의 함께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요, 국가의 소

중함, 그리고 이 EBS의 소중함을 나날이 깨닫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사나운 발톱에 할퀴이면서 풍찬노숙과 신산고초의 보내신, 신고의 나날을 보내신 선배들이 어떻게 군사대국과 경제강국을 꿈꾸기 이전에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나라, 나의 소원은 문화가 융성하고 풍요로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동력이야말로 한국의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육의 힘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로 우리 EBS가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나날이어서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919년 그때 어떻게 빼앗긴 왕정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었던지,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한 세기 후에 지금 아낌없이 실현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건대 중남미 아이들이 BTS에 열광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요, K-POP이 지구촌을 휘젓고 있고요, 나아가서 K-EBS, K-시네마, K-Food까지 나날이 지금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서 그리고 일부분 성공한 이 K-Edu의 형태가 지구촌에 귀감을 보일 수 있도록 꿈꿉니다.

<그레이트 마인즈>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인류의 지혜와 통찰을 더 깊게 하고요.

그리고 인종과 종교와 국적을 초월해서 인류가 꿈꾸는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들이 그 도구로 쓰였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또 ‘사무치면 꽃이 핀다.’는 좋은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EBS에서 헌신하는 모든 역량이 뛰어난 구성원 여러분과 그리고 임원진, 그리고 또 앞으로 구성되게 될 EBS 이사진들도 저희와 같은 꿈을 꿀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존중하고 협조해 주신 이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拍手)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임원진께서 좀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副社長 김유열

사장님하고 저도 송별사를..

○ 議長 유시춘

사장님 송별사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우선 지난 3년 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원팀 이사회로서 저희를 많이 이끌어주신 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영한 이사님, 정동섭 이사님, 또 김양은 이사님께서 소위 EBS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Glocaliz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레이트 마인즈>가 EBS 세계화의 대 전환점이라고 믿고 있고, 이게 EBS의 DNA로 남아서 앞으로 EBS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K-EBS에서 G-EBS로, Global-EBS로 나아가는 그런 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의 EBS는 Local이고 Domestic이었지만, 지금부터는 EBS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그런 EBS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향후 그러한 2차, 3차 새로운 기획들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고 저도 실무진들과도 그런 방향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해 주신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갖고 열심히 뛰라는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또 박강호 이사님께서, 밥값은 충분히 하였고요. 아마 술값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의 겸손한 자세와 낮은 자세를 격려해 주셨는데, 저 역시 수신료 현실화 또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인 차원에서 저희 권한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방통위에도 저희 향후 5개년 재정계획까지 다 해서, 또 이사님들이 주신 의견,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등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했고, 저희도 이 문제는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옥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의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

외국의 어떤 유명하신 분이 ‘사업의 성공은 30%의 콘텐츠와 70%의 마케팅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내부에 있었던 분들은 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편성센터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런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채널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동규 이사님, 미래에도 빛나는 EBS가 되기를 주문하셨는데, 아마 저도 내년 3월이면 떠나갑시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더욱더 빛나는 그런 EBS, 찬란한 EBS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K-Edu의 세계화, 이것은 작년에 사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학교교육 공백을 메웠던 그런 EBS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사회와 공유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러한 리더로 국가가 도약하는 데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拍手)

○ 副社長 김유열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부사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 副社長 김유열

제가 이사회에 배석한 지가 벌써 20년 됩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사분들을 굉장히 여러, 지금 7기 이사회니까 실제 7기 이사회 전체 분들을 본 셈입니다.

이사님들 앞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찍이 이런 이사회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아부를 조금 하고 싶고요.

저는 이사회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간부를 할 때는 늘 질타를 받는 자리였고, 그래서 항상 이사회는 개인적으로 힘든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하고 이사회를 하면서 첫 번째, 집행부와 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고 갈등이 없는 이사회를 사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박강호 이사님은 6년 하셨으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평화로운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EBS의 임직원들이 마음의 안정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철학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다.’ 단지 소소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이사님들 한 분 한 분이 EBS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철학을 논하는 자리였고, 또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론까지를 제시하는 그런 자리여서 사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주셨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EBS 현실의 문제를 이사님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사실 원래 그런 역할이 아니시니까.

그랬는데, 이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을 통해서 지난해 흑자 전환이, 저희들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이사님들이 발로 뛰고 구체적으로 EBS의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한 작업을 정말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EBS, 저는 직원 출신이니까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흑자 전환이 그냥 직원들의, 임직원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지난해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떠나시면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잊지 않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편안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들도 결코 잊지 않겠다.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님이시고 또한 등등을 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議長 유시춘

우리 함께 박수칠까요?

(拍手)

(閉會 : 17時 19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그럼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3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수고하셨습니다.

《散 會》